

국면전환 광복절 특사·개각 카드 만지작

박대통령, 정진석 원내대표 8·15특사 건의에 “좋은 생각” 이달중 미래·문체·노동·외교 등 4~6개 부처 개각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개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청와대 초청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 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데 대해 “좋은 생각이십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는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전에 검토한 바 없고, 아직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 참모는 10일 “사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실무진에 사면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오찬 당시 반응도 정말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답변이었는지 불분명하다. 청와대 참모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내각 개편을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개각 범위와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이달 중

으로는 개각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개각카드를 꺼내든다면 내각을 핵심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로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개혁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이 거론된다. 또 외교부의 경우 북핵 압박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분위기가 일신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환경부는 현안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크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직 분위기를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

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와 사회 갈등으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광복절 특사가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인지, 대상은 누가 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특사 자체는 찬성하지만, 경제사범이나 정치인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본회의 결국 파행

의장 선출·상임위 배분 더민주-국민의당 이견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반쪽 개회’했다가 곧바로 정회하는 등 의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간 의장 선거와 상임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앞서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의장단을 나누는 국회식 배분을 요구하며 원 구성 협의 없는 의장선

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본회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 더민주 소속 3명 등 전체 의원(22명)의 절반인 11명이 출석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양측은 대표단 협상 등을 통해 의사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입장 차이가 확연해 의장선거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번 의장선거에는 더민주 조오섭 의원, 국민의당 이은방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시의회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더민주 소속 의원 가운데 4명이 이달 조직을 보여 양 후보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 경찰저격사건 희생자 추모 촛불 경찰관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의 경찰 저격사건 이후 희생 경찰관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경찰을 향한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서장은 “우리 경찰들은 대개 많은 응원을 받지 못한다”며 “오늘은 평소와 달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저지른 이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9일 댈러스 경찰본부 앞의 임시 추모소에서 한 가족이 촛불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 서구의회 의장에 오광교 의원

광산구의회 의장에 조승유 의원

서구의회 부의장 오광록

광산구의회 부의장 박삼용

광주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는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오광교 의원과 국민의당 조승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서구의회는 7일 제 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민주 소속 4선의 오광교 의원을 의장으로, 같은 당 오광록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았다. 광산구의회도 지난 6일 제 218회 임시회에서 국민의당 소속 재선의 조승유 의



오광교 의장 조승유 의장

원과 새누리당 소속 4선의 박삼용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8일 남구의회 의장단이 선출되면 광주 5개 자치구 후반기 의장단은 모두 꾸러지게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정무특보 노성경씨 내정

광주시는 지난 8일 공석인 정무특별보좌관에 노성경 광주구민자진회원 본부장을 내정했다. 신임 노 정무특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운영한 광주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정무특보는 정부, 국회, 정당 등과 시정을 협의하고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와 소통하는 가교 구실을 하는 직책이다.

임기는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윤 시장 취임 이후 2년간 두 전직 정무특보가 각각 6개월, 1년 2개월여 만에 중도 사퇴해 이번이 세번째 임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특별법 개정’ 축구 광주공동체 메시지 발표

오늘 광주시·시의회·교육청·시민사회 등

민·관이 봉진 광주 지역사회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시민사회 등은 11일 오전 10

시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공동체 메시지’를 발표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5·18 비방·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광주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참여 주체들은 또 5·18의 역사가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고 오월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운영한 광주시장 등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메시지를 낭독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은 지난달 1일 당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과 5·18 기념식 제창, 5·18 비방·왜곡 및 사실 날조 행위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도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 총회 등을 통한 당론 발의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해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내년 개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책수립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회가 구성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만 9세부터 19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들로 제1대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 내년 개원하기로 했다. 모두 22명으로 구성될 의회는 오는 11월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의회는 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진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 과제 설정과 추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참여하게 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의회 구성과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어린이·청소년 진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임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